Copyright © 2008 라브리선교회 L'Abri Fellowship Korea · Downloaded from http://www.labri.kr

동화 속에 나타난 세계관

박경옥

세계관은 우리 삶의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철학 책뿐 아니라 거리에 우뚝 솟은 건물들, 흘러나오는 음악, 유행하는 옷, 모두에 세계관이 심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 읽어 주는 동화책에도 당시의 사고나 풍습, 세계관들이 속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의 세계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 주면서부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무심코 읽었던 내용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읽어 주려고 할 때에는 그냥 읽어 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동화를 읽을 때의 긴장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읽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읽어줄 수도 없는 곤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나오는 '귀신' 이야기는 재미의 수준이 아닌 공포의 분위기로서 아이들의 꿈자리에 나타날까봐 걱정이 될 만한 것도 있습니다. 전래 동화를 비디오 테이프로 만든 것들 중 어떤 것들은 본래 내용보다 더 과장되게 귀신을 표현하고 있어 더욱 염려가 됩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 좋은 내용을 담은 책 중에는 도깨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이 많아서 도깨비와 필요 이상 친숙해져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책들만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안전한 온실에서 살게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린도후서10:5)라는 말씀이 동화의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우선 몇 편의 전래 동화를 보면서 그 속에 드러난 우리 민족의 '신'개념과 '선악의 문제'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하며, 아이들이 많이 읽는 서양 동화 중에서도 한 편을 골라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즐길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사랑 받고 있는 훌륭한 작품을 감상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전래동화 속에 나타난 '신'은 누구인가?

[해님과 달님] 혹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산골 외딴 집에 홀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부잣집 잔치에 가서 일을 거들어 주고 밤이 늦어서야 산을 넘어 돌아오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어머니로부터 떡을 다 빼앗아 먹고 결국 어머니까지 잡아먹었다. 그리고서 어린 남매를 마저 잡아먹기 위해 어머니 옷을 입고 집으로 찾아왔다. 남매는 호랑이로부터 도망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 어떻게 나무에 올라갔느냐고 묻는 호랑이의 말에 어린 누이는 도끼로 찍어 올라오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제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오게 되자 다급해진 아이들은 마침내 '하느님'을 찾았다. "하느님, 우리를 살려 주시려거든 성한 밧줄을 내려 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밧줄을 내려 주세요." 이에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 아이들은 하늘로 올라갔다. 호랑이도 아이들처럼 기도를 하니 하늘에서 썩은 밧줄이 내려와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수숫대 속이 빨갛게 되었다고 한다. 하늘에 올라간 오누이는 해님과 달님이 되었다.

어린 오누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상황에서 하느님께 기도하여 밧줄을 타고 올라가 해님과 달님이 된다는 이 이야기는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본 동화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하느님'은 우리 민족의 '신' 개념을 잘 드러내 줍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는 우리의 토속 신들 중에서 산신령으로 받들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산신령은 인간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위협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간의 태도 역시 신의 성품에 의한 인격적인 감화는 찾아볼 수가 없고, 단지 급할 때 찾는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급한 상황에서 부른 '하느님' 역시, 평소 믿었던 하느님이 아니라, 위기에 처하게 되자 무작정 '하느님'을 불렀고 그것이 어쩌다 들어맞은 것입니다. 요행일 뿐이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은 선악에 대한 명백한 구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선했기에 살린다던가 호랑이가 악하기 때문에 죽인다던가 하는 기준 없이 신의 기분에 따라 죽이고 살리는 듯한 인상을 남깁니다.[1)]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이해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가끔 기독인 중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토속 신들처럼 인간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과 맺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 성품 속에 '사랑'과 함께 '공의'도 포함됩니다. 그 분은 기분에 따라 좌우된다거나 뚜렷한 원칙이 없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개와 고양이]: 옛날에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큰 잉어를 잡았으나, 잉어가 눈물을 글썽이며 놓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놓아주었다. 그런데 다음날 용왕의 아들이 나타나 노인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며 용궁으로 모시고 가서 며칠간 극진한 대답을 하였다. 집 생각을 하는 노인에게 용왕의 아들은 용왕이 선물을 줄 때 금빛 구슬을 고르라고 귀띔을 해 주었다. 노인이 금빛 구슬을 고르자 용왕은 가장 귀한 보물인 그 구슬을 주고 싶지 않았으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줄 수밖에 없었다.

구슬을 가지고 온 노인은, 말만 하면 뭐든지 생기게 하는 금빛 구슬로 부자가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강 건너 방울장수는 노인의 아내를 교묘하게 속여 구슬을 빼앗아 가고 노인은 다시 가난

하게 되었다. 슬픔에 잠긴 노인 부부를 보고 이 집의 개와 고양이는 구슬을 찾아 나서고 드디어 구슬을 가지고 돌아오나, 개의 미련한 행동으로 구슬은 강에 빠지고 말았다. 개는 그냥 집으로 돌아오지만 고양이는 어부들이 버린 죽은 물고기 속에서 구슬을 발견하여 가지고 왔다. 그 후부터 고양이는 따뜻한 방안에서 살게 되고 개는 밖으로 쫓겨나서, 둘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개와 고양이의 모험이지만 여기서는 '용왕'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래 동화에 등장하는 '용왕'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인상을 줍니다. 아들을 살려준 은인을 후히 대접하고 귀한 선물까지 줍니다. 또, 금빛 구슬을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슬을 줍니다.

앞의 '햇님과 달님'에서 산신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 어머니를 잡아먹고 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이 용왕 역시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인간을 바르게 살도록 하려는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왕 역시 다른 토속 신들처럼, 인간들에게 어쩌다 운이 좋으면 만나서 팔자 한 번 고치는 '요행심리'의 근원으로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용왕의 권한은 바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과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구원을 위해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다나 산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온 우주와 피조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의 '토속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전래 동화에 나타나는 인간들의 삶과 사고는 어떠한가?

[팔만 대장경의 유래]: 팔만 대장경이 만들어진 유래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인 이야기가 있다. 거인이 죽어 저승에 가게 되었다. 저승 문을 지키는 나졸들을 통솔하는 삼목왕이 있었는데, 그를 보고 반가워 뛰어 왔다. 삼목왕은 그가 살았을 때 그리도 사랑해 주던 강아지였다. 그는 강아지가 죽었을 때 제사까지 지내 주었다. 염라 대왕은 거인이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을 보고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 거인은 자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불경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염라대왕은 그가 부귀영화를 원하지 않고 불경을 남기고 싶다고 하니 기뻐하여 그의 수명을 십 년 간 연장해 줄 것을 명령한다. 삼목왕은 이왕 온 김에 저승 구경이나 하고 가라며 구경을 시켜 준다. 저승에는 극락에서부터 지옥까지 여섯 단계가 있다. 극락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간다고 한다. 여기서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다시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세상에서 지은 선행에 따라 부자로도, 가난한 사람으로도, 학자나 농부, 도둑 등으로 태어난다고 한다. 다음은 비교적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아수라 세계가 있다. 여기서는 매일같이 서로 만나면 피를 흘리며 싸움을 한다. 남과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아귀계라는 곳이 있다. 아귀계는 가엾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욕심을 많이 부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여기서는 서로 먹으려고 다툰다. 다음으로 짐승 세계인 축생계가 있다.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시키기만 하고, 편히 잘 먹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은 축생계에 가서 소나 말, 개, 돼지 같은 것으로 태어나 고생한다고 한다. 끝으로 지옥이 있다. 지옥은 도둑질, 살인 같은 큰 죄를 짓거나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가는 곳이다. 거인은 여섯 군데를 다 둘러보고 나서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그는 임금에게 염라대왕으로부터 받은 불경을 바치고 나라에서는 이것으로 대장경을 만들게 된다.

이 이야기에는 윤회사상 혹은 환생설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강아지도 착하면 저승에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도 악하면 동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은 동물과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지극히 미약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무조건 그 가치가 인정되는 기독교의 인간관과는 매우 다릅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극락에는 죄 짓지 않은 자들이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늘나라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슬픔과 악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다른 동화들에도 보면, 불교 전래 동화들에 나타나는 '내세관'은 매우 '현세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내세를 현실에서의 욕망이 충족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다시 세상에 태어날 때 선행에 따라 나오는 정도를 보면, 부자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말해 팔자로 여기는 사고가 보입니다. 그리고 도둑으로도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저승에 윤리 의식이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에서는 선악이 분명히 대립됩니다. 하니님은 '악'을 만들어내지도 않으며, 미워하십니다. 반면 불교에서는 선악의 구분이 분명치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실제 삶 속에서는 누구나 선악을 구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재에 들어맞지 않는 불교의 선악관은 하나의 허상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진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불충분하게 됩니다.

[혹부리 영감]: 혹부리 영감이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은 이 노인만 보면 놀려댔다. 그래도 이 노인은 착해서 화를 내지 않았다. 어느 날 노인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낮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만 날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노인은 할 수 없이 집에는 못 가고 빈집에 들어갔다. 밤중에 무섭기도 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도깨비들이 와서 노래 주머니를 달라고 하였다. 노인은 처음에는 노래 주머니가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하여 도깨비들은 혹을 떼 가고 노인은 대신 보물도 얻고 도깨비 방망이도 얻어 와 그의 집은 벼락부자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옆 마을의 혹부리 영감도 노인의 말을 듣고 그 빈집에 밤에 가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러나 앞의 노인에게 속은 것을 안 도깨비들은 이 영감에게는 선물은커녕 혹을 하나 더 붙여 주고 가 버린다.

이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주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혹부리 영감님은 거짓말을 하였는데도 횡재를 하였고 나중에 등장하는 영감님은 앞의 영감님이 받아야 할 몫의 벌까지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의 영감님이 평소에 마음씨가 고왔다고는 하나 자신의 횡재를 이웃과 나누어 가졌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혹 두 개를 달게 된 영감님은 평소에 나쁜 사람이었을 수는 있지만, 남의 죄 값을 대신 받는 불운을 당하게 됩니다. 권선징악이 아니라 선과 악이 혼재된 채로 결론을 맺은 이야기입니다. 전래 동화에 흔히 나오는 '횡재'는 이상하게도 자기 가족에게만 국한되고 이웃과 나누어 쓴다거나 이웃을 위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덕진다리' 이야기나 '홍길동전' 등 극히 일부만이 예외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도깨비는 귀신적인 이미지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음악을 좋아하며 인간에게 속아넘어갈 만큼 어수룩합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어수룩한 도깨비 이야기나 인간과 내기

에서 진 도깨비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들은 그리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야기에 재미를 더해주는 양념이라고나 할까요? 서양 동화의 '요정'에 버금간다고나 할까요? 서양의 요정이 예쁘고 작은 반면, 도깨비의 모습은 우락부락하고 투박합니다. 도깨비를 무섭게 만든 데는 우리 민족 특유의 '신(神)관', 즉 신의 존재는 고매한 품성이나 자비가 아니라,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통해 유지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2)] 지금도 어느 고을에서는 도깨비를 진짜로 숭배한다고 합니다. 숭배 대상으로서의 도깨비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양 동화에 나타난 신과 인간

프랭크 바움의 [위대한 마법사 오즈]: 미국 캔자스에 사는 도로시라는 여자아이가 회오리바람에 휘말려 뜻하지 않게 마법의 나라에 가면서부터 시작된다. 집에 돌아가고 싶은 도로시는 착한 북쪽 마녀의 권유로 '오즈'라는 마법사를 찾아 나섰다. '오즈'는 대단한 마법사이기 때문에 도로시를 집으로 보내줄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가던 길에 도로시는 뇌를 원하는 허수아비와, 심장을 원하는 양철 나무꾼, 용기를 갖고 싶어하는 사자를 만나 온갖 모험 끝에 '오즈'를 만났다. 그러나 오즈는 서쪽 마녀를 죽이고 와야 이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고 조건을 내 걸었다. 이들은 힘겨운 모험 끝에 서쪽 마녀를 죽이고 '오즈'에게로 가서 그들의 요구를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즈가 마법사가 아니라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였다. 오즈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과 사자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지만, 원한다면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허수아비에게는 두뇌 모양의 짚을, 양철 나무꾼에게는 분홍색 심장 모양의 어떤 것을, 사자에게는 초록색 물약을 준다. 이들은 이것들을 받자 자신들의 소원이 진짜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좋아했다. 오즈와 도로시는 같이 기구를 타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강아지 토토 때문에 도로시는 못 가게 되어서, 결국은 자신이 신고 있던 서쪽 마녀의 구두의 힘으로 집에 돌아왔다.

본래 [오즈의 마법사] 시리즈는 14권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1권만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1권만이 '오즈의 마법사'로 통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오즈'라고 하는 전능하다고 여겨졌던 마법사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작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즈'라는 마법사는 신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도로시 일행도 오즈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은 미국에서 서커스단에서 일하다 어쩌다가 이 세계로 떨어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법사인 척하며 이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탄로 날까봐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 척 군림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도 할 수 없는'서쪽 마녀 해치우는 과업'을 도로시와 그 친구들에게 부탁하면서도 자신은 전능한 척 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탄로 났을 때에도 그는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었으며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사자에게 실제로는 아무 효력도 없는 선물들을 주고 마치 그것들이 효과가 있는 척 하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도로시의 친구들도 그 선물이 별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즈'는 자신에게 속아 온 백성들에게 끝끝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화 속에서는 도로시 일행의 따뜻한 우정과 재미있는 사건전개에 가리워서 '오즈'라는 인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서양 동화는 선악이 분명한 것이 보통인데, 이 동화는 '오즈'라는 인물에 대해서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잘 모르면서'척'하는 일

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상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인들이 가까이 가기에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그분은 진정으로 당신을 찾는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루이스의 나르니아 이야기에 나오는 사자의 위엄 있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를 연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분은 오즈처럼 효력 없는 선물들을 주어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속임수를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이미 네 속에 거한단다"라고. 서양 동화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 속에서도 가려낼 것은 가려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작가의 뛰어난 상상력과 문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작가의 사상 중에 우리가 즐기고 배울 것들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루이스의 [사자와 마녀와 옷장]: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라고 하는 네 형제 자매가 전쟁 중에 비행기 공습을 피하여 런던을 떠나 어느 노 교수 집에 머무는 동안 일어난 이야기이다. 노 교수의 빈방에 있는 옷장은 요술 옷장으로서, 그 안에는 숲도 있고 눈도 내리고, 반인반양(半人半羊)도 있고, 마녀도 있는 '나르니아'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다. 나르니아에는 흰 마녀가 살고 있는데, 그녀의 마술에 의해서 나르니아에는 늘 겨울만 있고 크리스마스도 없다.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바다 황제의 아들이자 숲의 왕이며 위대한 사자인'아슬란'이 나타나면 흰 마녀의 겨울이 끝나고 새 봄이 돌아온다고 했다. 드디어 아슬란이 돌아옴으로써 나르니아에는 새 봄이 시작되었고, 아슬란은 네 아이들과 함께 흰 마녀와 대항해서 싸우게 된다. 결국 싸움은 아슬란 편의 승리로 돌아가, 캐르 파라벨 성에 있는 네 개의 왕좌를 네 아이들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흰 마녀의 나르니아 통치는 끝나게 된다.

이 동화는 영국 작가 루이스(C. S. Lewis)의 [나르니아 연대기] 7권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으면서도 재미있고 작가의 지식과 상상력이 풍성히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톨킨(Tolkien)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동화를 통해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고 동물과 인간이 말하게 하고 싶어한다고 하였습니다. 루이스의 이 동화에서도 주인공들은 시공을 초월해 나르니아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에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보던, 반인반마, 말하는 동물들, 유니콘 등 온갖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아담의 아들','하와의 딸'은 그 이름에 걸맞게 인간의 고뇌와 함께 고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가 에드먼드를 통해 나타내는 인간심리의 죄성과 고뇌 등은, 우리가 인생 길에서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새를 따라가며 형 피터에게 하는 말은 가히 일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기나 하는 거야? 우린 지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안내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 새가 누구 편인지 우리가 알 게 뭐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한 번쯤은 했을 법한 질문입니다. 그가 마녀의 정체를 확신했을 때의 상태를 나타낸 구절이 있습니다."에드먼드의 이 같은 혼잣말은 당시의 자신의 행동을 마음속으로 변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핑계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흰 마녀가 잔인하고 나쁜 마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악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갖게 되는 마음의 갈등 상태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겨울만 있고 크리스마스는 없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나르니아에 산타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나를 오랫동안 못 오게 했지만, 마침내 내가 이리로 들어왔단다. 아슬란이 오고 있는 중이다. 마녀의 마술이 이제 힘을 잃고 있어." 사실 아슬란이 상징하는 예수와 산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존재인 산타를 예수와 함께 이야기 속에 등장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산타는 선물을 나누어 주며 아슬란이 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황금빛 털을 휘날리며 아슬란이 나타납니다. 가까이 가기에는 두려워 보이지만 그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발 역시 두려워 보이지만 소리조차 내지 않고 부드럽게 내딛습니다. 마녀의 난쟁이가 아슬란에게 왔을 때, 아슬란은 그를 "지상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아들', '하와의 딸'과는 대조되는 말로서 악의 세력을 잘 지칭합니다.

드디어 마녀와 아슬란의 담판이 시작됩니다. 마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당당히 말합니다. "당신은 강한 마력을 잊으셨소? 황제께서 나르니아의 초창기에 가져다주신 마력은 적어도 알고 있겠지요? 나에게는 무릇 모든 배반자(이 글에서는 에드먼드를 가리킴)들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으며, 나는 배반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겠지요?"마녀의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묘사하는 뛰어난 표현입니다. 이 때 비버가 한 말 역시 사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와줍니다."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은 자신을 여왕이라고 상상하고 있었군요. 황제의 교수 집행인이었으니까 그랬군요." 아슬란은 비버를 조용히 하라고 타일렀으나, 비버의 이 말은 작가가 꼭 하고 싶었던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아슬란은 배반자를 대신하여 죽으러 갑니다. 제 발로 걸어가 아무 저항도 없이 마녀와 그 무리의 조롱을 받는 처참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드디어 아슬란은 밧줄에 묶여 돌 탁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녀 일당은 소름끼치는 광란의 소란을 떤 후에, 아슬란 편을 무찌르러 우르르 몰려가 버립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때, 작가는 생쥐들을 등장시켜 아슬란이 묶여 있는 밧줄을 갉아 끊게 만듭니다. 생쥐들의 등장 역시 아주 멋진 착상입니다. 아슬란은 부활합니다. 마녀가 미처 모르고 있던 '태초 이전의 마법'에 의해 아슬란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 후에 수잔과 루시와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장면은, 인간 예수의 부활 이후의 쓸쓸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야말로 함께 어우러져 마음껏 뛰고 뒹구는 하늘나라의 그림입니다.

아슬란은 마녀의 성으로 가서 마녀가 돌로 변하게 한 석상들에 숨을 불어넣어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간이 된 사실을 작가가 적재적소에 이용한 경우입니다. 마녀의 마법에 의해 석상이 된 피조물들이 아슬란의 입김으로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한바탕의 전쟁이 있은 후, 마녀는 패하고 '아담의 아들들'과 '하와의 딸들'이 평화로운 나르니아를 다스리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적 조망이 없이 그냥 읽어도 재미가 있지만, 작가가 '환타지'라는 장르를 빌어 상상의 세계에서 성경의 주제를 멋지게 엮어 냄으로써 더욱 작품성과 의미성이 두드러지는 걸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동화가 사사건건 다 성경에 일치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동화는 동화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쓰였으면서도 온 세상 누구에게나 읽힐 수 있는 어려운 작업을 해낸 작가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러한 작가가 또 나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탁월한 다른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토양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작품을 말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동화 속에서 나타난 세계관을 살펴본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작업입니다. 상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며, 작가의 상상력과 가치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한 비판은 너무 메마르고 결국 남는 것은 재미없

는 교훈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 반대입니다. '죄'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고린도후서 10:5상)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독교적입니다.

파란 옷만 입는 뭉크킨의 나라([위대한 마법사 오즈]에서)를 상상한 것도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흰옷을 즐겼듯이 말입니다. 호랑이에게 팔다리가 먹힌 후에 남은 몸뚱이를 끌고라도 아이들이 있는 집 쪽으로 굴러간다는 표현([햇님과 달님]에서)은 자식에 대한 엄마의 애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눈으로 작품을 본다는 것은 작품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즐기고 보고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인이라면 제대로 즐길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작가들은, 비록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글 쓰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기독인이건 아니건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느 면에서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깊고 넓게 해주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로부터 좋고 훌륭한 것들을 최대한으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했어야 하는 작업을 겁도 없이 손댄 듯한 느낌입니다. 이 조그만 작업이 발판이 되어 아이들이 읽는 동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작품에 대한 유심한 관찰과 분별, 그리고 더욱 풍성한 감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1) 홍일식,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pp.135,136

2) 홍일식, 앞의 책, p.135,136